

선수위원장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서

구분	제기내용	사실 확인 및 의견	비고
1. '16년 입사대의원 총회 개최관련	○대의원총회 통지 안건 내용과 다른 안건내용 심의	- 회의: '16.2.26, 대전역 '산천살' 개최 - 사무국장이 초안으로서 내용변경 가능성을 사전 설명하고 결재되지 않은 자료를 보내고(2.24), 이후 확정·완료된 공문을 보냄(2.26) - 총회 당시 통지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참가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함. ※ 정관 제16조 제4항에 '총회 소집 등 안건통지는 7일전, 긴급한 경우 기간 단축 가능'으로 되어 있으나, 당일 배포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대의원의 자격미달 대리인 참석 및 정관변경 시 재적대의원 2/3의 참석의 성원요건 미충족	- 재적대의원 15명 중 미자격자 2명을 포함하여 '정관변경' 정족수 2/3인 10명으로 개최하였으나, 대한 이의제기에 의하여 성원 미달로 정관 변경 무효 처리함. ※대리인은 부회장만 해당되나, 사무국장을 성원에 포함(서울 000 사무국장, 전북 000 사무국장) ※'16.4.29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원요건을 갖추어 의결 처리 - 이는 정관 제14조 제2항(대리인 자격), 제57조 (정관변경 의결정족수)를 위반하여 엄정한 의결 기구 운영을 저해함.	
2. 전문체육위원회 구성관련	○'16.1.22. 협회장 본인 명의로 내부기안을 작성해 기안·결재 하여 구성	- 당시 사무국장(000)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팀장(000)에게 실질적 기안을 지시하여 회장 명의의 기안 및 결재 처리 - ★이는 협회 사무국 소수 편제를 감안, 회장 기안이 체계적이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규정 상 제한은 없음. ※ 국가대표선발규정 내의 전문체육위원회 관련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u>가맹단체장이 위촉</u> 한다.'로 규정함.	
	○'15년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한 국가대표 감독 임기보장 무시	- '15.10.6 강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000'을 감독으로 선임 의결하고, 관련 행정조치로서 내부품의 또는 채용계약서 없이 약 50일간 임무를 부여하였으나, 제도 변경(위원회 명칭변경 및 감독 자격요건 강화)과 관련하여 선임 감독을 선임함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16. 1월 경 000 감독을 자동 해임하는 결과를 초래함. ※ 000 감독을 '16년 항저우대회에서 리우패럴림픽 출전권 확보를 못할 시 경질한다는 내용으로 논의 하여 선임 의결	

구분	제기내용	사실 확인 및 의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국가대표 선발 공고문에서 '훈련기간을 '15.11.2부터 '15.12.21까지로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국가대표 선발은 1년 단위로 선임하는 바, '15년 선발된 감독이 '16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계약서 체결 및 감독 선임기간에 대한 명확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 이후 강화위원회에서 전문체육위원회로 변경(감독 자격요건 강화)됨에 따라 재공고 후 신입 감독 선임(000 감독, '16.2.23자) 	
	○'15년 3차 이사회 결정사항 없이 전문체육위원회 구성 강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15.11.28, 대원전기교육원 세미나실 - 정관상 '전문체육위원회'에 대한 명칭변경 후 규정개정 및 구성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추정되나 - 협회 규정에 우선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상위 규정에 의한 긴급 제정이며, '16.4.29.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의 관련조항을 변경함. 	
	○'16.2.3. 임시이사회에서 2차 임시전문체육위원회 구성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16.2.3,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근 '만리향' 안간: 전문체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승인 등 - 이사회에서도 1인 내부품의 등 정상적 절차에 대한 우려를 하였으나, 사안의 시급성 및 그 외의 절차 준수를 인정하여 원안 통과됨. <p>※ 위 ★표의 회장 직접 내부결재구성에 대한 제기사항 참조</p>	
	○'16.2.20. 임시전문체육위원회 회의 및 이사회 개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16.2.23, 협회 사무국에서 연석회의 진행 - 안건: '16년 국가대표 지도자, 선수 선임안 재심의 - '16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은 중국 항저우대회(리우 PG 출전권 획득) 참가를 위한 긴급사안으로 심의함. - 기 선임된 000 감독이 추천한 코칭스텝과 선발전 없이 시·도지부 추천을 받은 선수를 선발함. <p>※감독이 추천한 코치를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선발규정 제14조①항에 명시된 '공개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국가대표를 선발한 것은 규정위반에 해당</p>	
3.'16년 국가대표 선발 규정 위반	○'16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관련 -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공개선발과 공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7조(국가대표지도자 선발방법 및 시기) -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감독 채용공고 실시('16.1.15자) - 중국 항저우대회(리우 PG 출전권 획득) 참가를 위한 긴급사안으로서 '16.2.23. 임시이사회에서 승인처리 - ◆이는 '15.11.28 제정된 국가대표선발규정에 '6개월 전 공고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한장애인 체육회(교육훈련부)의 한시적 지침으로서 '2017년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문서 시행 및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기에 협회의 잘못은 없음. <p>※협회는 '16.1.15 공고를 하였음.</p>	

구분	제기내용	사실 확인 및 의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의 제출서류 검증 및 확인 절차 없이 처리결정 (면접 당일 제출) - 국외서류 진위여부 미확인 및 본인 해석에 의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 응시자의 중국 지도자 경력은 전문체육 위원회에서 중국 현지에 전화를 통하여 확인함. - 국제경력증명서(중국어 원본)는 필요 시 공증하기로 하였고, 해당 증명서에 대해 발급기관(중국상해 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 대한장애인체육회 확인 <2016.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국가대표 감독선발 당시 경력서류 문제와 진정서에 의하여 법제상별위원회에 회부중인 상황 인데도 이를 묵과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감독 선발대상은 000, 000 2인이며, 000의 경력사항 오류(혹은 의도적 허위 기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선임하지 않았음. - 그러나 단순 응시자 신분의 대상자를 법제 상별위에 회부한 점은 적정하지 않은 사무국 행정처리 오류사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발된 코치 경기지도자자격증 미소지 의심 - 경기지도자 자격증 위조로 인하여 입촌 후 바로 퇴촌 .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도 선임된 000 감독이 '15년도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한 000을 선발하였고, 당시 000 사무국장이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함. - 그러나 추후 자격미달(자격증 미소지)이 확인 되어 해임함(선수촌 퇴촌조치). - 이는 사무국에서 자격사항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선발하는 등 직무태만으로 문제를 야기시킴. 또한 미자격자 코치에게 지급한 수당은 환수. 코치경력은 말소 처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레이너 자격증 미소지 의심 -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나 해당 트레이너 자격증 소지자로 선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은 트레이너가 아닌 훈련보조로 선발 하였으며, 비용도 훈련보조원 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하였음. - 이는 훈련원 내에서 훈련보조원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여 트레이너로 사용한 점을 오해한 것으로 추측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년 국가대표 선수선발 관련 - 선발선수 중 7명은 「2015년 국가 대표선수 선발 거부 성명서」 건과 관련, 협회 법제상별위원회에 회부 중임에도 선발함. ※성명서 발표내용과 관련, 선수들은 경북 팀 감독인 000감독의 명예 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된 상황임. - 1명은 임의탈퇴 공시요청으로 논란과 행정상의 문제(규정 무시)가 있음에도 선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서를 발표한 선수(9명)들이 고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당시에는 대표선수 선발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상별위에서 이진 관련하여 '경고' 처분으로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에 선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성명서 발표 9명 중 7명이 대표선수에 선발됨. - 임의탈퇴 공시요청에 대하여 팀과 선수 상호간 내용이 상이하여 사실확인을 하는 단계이며 현재도 진실공방 중으로서 판단을 보류함. ※ 해당선수는 국제등급분류 심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해, 현재 국내 선수등록을 못하는 상황임. 	

구분	제기내용	사실 확인 및 의견	비고								
4.협회 사무 관련	<p>○전 전무이사, 전 사무국장에게 압박과 비리조장을 요구하여 이에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없어 사표를 제출</p> <p>- 충남 협회장 및 임원들이 중앙협회 사업 및 운영과 사무국 직원에 대한 간섭 및 음해조장 등의 외함</p> <p>○현 사무국장 및 직원 채용과 관련 절차에 의한 채용여부 확인 필요</p> <p>○현 사무국장의 경우 협회이사→ 전문체육위원 위원→ 사무국장 임명 순으로 보직이동 경위</p>	<p>- 협회장이 전 전무이사(000)와 전 사무국장(000)에게 비리조장을 요구한 구체적 증거 등이 발견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0 감독은 '15년 심판연수 시 참가비(10만원)를 미납했으나, 000 사무국장이 직권으로 참가등록을 시켰고 그에 따른 자격증 발급(부정발급)을 한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한 충남협회에서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와 관련 책임을 물어 인사위원회서 000 사무국장 해임을 결정함('16.2.2) <p>- 구직사이트 워크넷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16.2.5)를 통하여 2명이 지원, 서류심사와 면접 절차를 거쳐 채용함.</p> <p>- 000 사무국장은 전 이사 및 전문체육위원이었으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됨으로써 절차상 하자는 없음.</p> <p>※ 000 사무국장 재직현황</p> <table border="1"> <tr> <td>직위</td><td>이사</td><td>전문체육위원</td><td>사무국장</td></tr> <tr> <td>재직기간</td><td>'15.5.12~ '16.2.1</td><td>'16.1.25~ '16.2.1</td><td>'16.2.24~ 현재</td></tr> </table>	직위	이사	전문체육위원	사무국장	재직기간	'15.5.12~ '16.2.1	'16.1.25~ '16.2.1	'16.2.24~ 현재	
직위	이사	전문체육위원	사무국장								
재직기간	'15.5.12~ '16.2.1	'16.1.25~ '16.2.1	'16.2.24~ 현재								
5.협회 임원 및 이사 구성관련	<p>○동일대학 출신자가 20%초과 구성 할 수 없는데도 '16년 이사진 인사가 잦으면서 이를 어기고 이사를 구성</p> <p>- '16년 임사이사회 참석한 이사들의 대학학력 확인하여 동일대학 출신이 몇 %인지 확인 필요</p> <p>○'16년 임사이사회의 이사들의 성원 및 과정, 의결사항에 대한 의구심</p> <p>※안건 내용, 안건에 대한 진위여부, 타당성 검증 없이 보고된 내용과 결과만 가지고 의결 한 결로 들었음.</p> <p>○각 분과위원의 국가대표선발만을 위한 전문체육위원회로의 알 수 없는 보직이동 사항</p> <p>- 상별위원장은 계류 중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채 사임하고 전문체육위원회위원으로 보직이동 하였으며, 경기위원장과 위원들이 사임하고 전문체육 위원장과 위원으로 이동</p>	<p>- '15년 임원구성 당시 이미 동일대학 출신(경북대학교)이 20% 초과되어 구성되어, 정관 제2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함.</p> <p>※협회 제5대 임원진 구성 시 동일대학(경북대) 출신이 7명(000,000,000,000,000,000,000)으로 승인임원 26명 대비 27%로 구성됨.</p> <p>- '16.2.23 임사이사회 당시는 재적이사 21명(중전 23명에서 2명 사임) 대비 12명 참석으로 성원요건을 갖추어 안건 처리됨.</p> <p>- 관련규정에 의하면, 경기위원회,상별위원회,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위촉하고 전문체육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는 바, '16.4.16자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함.</p> <p>- 사무국에서는 상별위에 재심요청을 하였으나, 당시 000 상별위원장이 지체분과위원장으로 변경('16.1.25자, '16.4.16부터 현재는 지체분과위원장) 되면서 현재까지 심의 보류 중인 바, 회장이 판단하여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p>									

구분	제기내용	사실 확인 및 의견	비고
		- 000 경기위원장을 '16.1.25자로 전문체육 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위원회의 잦은 변경은 업무처리 지연 및 혼선의 영향이 있기에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	
6.협회 선수등록 규정 개정 관련	<p>○선수등록규정 개정 시 근거와 명분 및 선수들의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공시 절차도 없이 협회 이사회 의결로 개정됨.</p> <p>-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 등록 및 이적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규정 개정으로 팀 구성과 선수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p> <p>- 선수위원회 및 선수들은 어떠한 근거와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협회의 선수등록 규정 개정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힘.</p>	<p>- 선수등록 및 이적에 관한 규정은 대한장애인 체육회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협회에서 제 개정안 마련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등록팀과 선수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p> <p>- 다만, 민원인의 주장처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더 합리적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p> <p>※개정된 규정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함</p>	
7.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p>○KPC 체육진흥부 및 훈련지원부</p> <p>- 배구 선수위원회가 배구협회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상위기관인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정보공개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이렇다 할 결과나 서면 통보가 없으며 민원에 대한 조차나 해결 의지가 없음.</p> <p>- 배구협회에 '16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선발의 문제점을 제기 하였으나 최종승인 처리됨.</p> <p>-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대한장애인배구선수위원회에 민원과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투명하게 조사를 요구함.</p>	<p>- 민원 접수('16.2.5) 후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배구협회의 고유업무 사항으로서 서류보관 중인 바, 해당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요구문서를 '16.2.12자로 이관하였고(2.6~2.10 설 연휴), 협회에 결과 회신을 요구(2.19) 하였으나, 협회의 사정으로 관련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민원처리 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p> <p>※민원인에게 전화로(3회) 정보제공 지연에 따라 양해를 구하고, 4월경 임원 명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p> <p>- 각 종목의 국가대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 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으로서 통보 받음.</p> <p>※국가대표선발규정 제4조 제1항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및 지도자는 해당 기맹단체에서 선발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함으로써 국가대표의 자격을 갖는다.」</p> <p>- 유선으로 수차례 민원인에게 설명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책임행정의 문제로 인식됨.</p> <p>※자격증 부적격 코치 퇴촌 처리 '16.3.4 보고 받음</p> <p>- '16.5.12~13 배구협회 민원관련 현지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p>	

구분	제기내용	사실 확인 및 의견	비고
8.배구 선수위원회 요구사항	<p>○선수위원회는 배구협회에 대한 공개 행정감사를 요구함.</p> <p>○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징계를 요구함.</p> <p>○배구협회 행정감사에 있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한 행정감사는 거부함.</p>	<p>-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배구협회에 대하여 '16.5.12~13간 '16년도 확인감사와 병행하여 민원관련 현지 특별조사를 실시함.</p> <p>- 배구협회는 ①대의원총회의 성원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 ②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임원 구성, ③불안정한 위원회 운영, ④지도자 선임시 자격여부 등의 철저한 사전 검증 ⑤정보공개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 대응 소홀 등의 사유로 ⇒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조치 필요</p> <p>- 전 사무국장(OOO)은 ①협회의 행정적 오류를 다수 유발한 주 책임자이며, ②개인 정보·협회 서류(자료) 및 정보 유출 등으로 선수위원장과 전 감독의 민원제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③협회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에 ⇒ 자체 상벌위 징계에 의하여 '16.2.5자로 해임되었으나, 「자격정지」 등의 추가 징계에 대한 협회의 검토 및 판단 필요</p> <p>- 전 국가대표 감독(OOO)은 ①'15년 심판연수 시 연수비를 내지 않고 부당하게 자격증을 취득, ②사무국으로부터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외부 유출시킴으로써 협회의 명예훼손과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 점 ③사무국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기에 ⇒ <u>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므로 「자격정지」 등의 징계에 대한 협회의 검토 및 판단 필요</u></p> <p>※ OOO은 '사무국 직원 폭안폭력'을 행사하여, '16.2.2 개최된 협회 인사위원회에서 5~10년 자격정지 의견으로 상벌위 회부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유보 중</p> <p>※ OOO은 실업팀 관련, 천안시청에도 수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됨. 또한 일반 대구배구협회 등 각급 기관 및 단체에 민원을 제기 중</p>	